

風格用語“風神”의 含意 辨析*

— 전통 산문 풍격용어로서의 “風神”을 중심으로 —

黃 一 權 *

<目 次>

I. 머리말	2. 전통 산문평론에서의 “風神”의 함의
II. “風”·“神”·“風神”의 의미	1) “風神”의 형성요소
III. “風神”의 용례를 통한 함의 분석	2) “風神”의 심미효과
1. 전통 산문평론에 운용되기 이전의 “風神”의 함의	IV. 결 론

I. 머리말

“風神”은 인물 및 예술작품 품평에 두루 사용된 풍격용어로, 각 영역의 미적 특성을 개괄하는 데 사용되었다. 인물품평에 사용된 것을 필두로 書畫 그리고 詩歌 평론에 사용되다가 明代에 와서는 산문평론에 원용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예술평론에 사용된 풍격용어가 적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風神”이란 풍격용어의 함의를 辨析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風神”이 여러 영역의 품평 혹은 평론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통 산문평론 영역에 원용된 특수한 사례에 주목하게 된 데서 연유한다.

* 본 연구는 2004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계명대학교 중국어문학과 전임강사

전통 산문평론에 운용된 풍격용어 역시 부지기수인데도 불구하고 “風神”이란 풍격용어의 함의를 辨析해보려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風神”이라는 풍격 용어가 여타 다른 풍격용어와는 달리 중국 산문사상 가장 비중 있는 작가로서 평가 받고 있는 司馬遷과 歐陽修의 작품을 품평할 때 집중적으로 사용되다가 급기야 두 사람의 별칭 및 號와 결합되어 이들 작가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주된 심미 개념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된 점에 주목한 것인데, “史遷風神”과 “六一風神”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중국의 산문평론사 뿐만 아니라 여타 장르의 평론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로써 중국 고대 산문평론에 있어 “風神”이라는 풍격용어는 해당영역의 여타 풍격용어 및 다른 영역에서 사용된 예에 비해 더욱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할 수 있겠다. 따라서 “風神”의 함의를 분석하는 작업은 중국 산문의 심미 특징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風神”의 함의를 辨析하기 위해 본고에서 우선 字解書와 사전, 그리고 문헌자료를 통해 “風神”을 구성하고 있는 “風”字와 “神”字, 그리고 “風神”의 기본적인 의미를 고찰하여 그 함의의 실마리를 탐색해 보고, 용례 분석을 통해 그 함의를 분석해냄으로써 중국 문학비평 용어의 모호성을 해결하는데 조그만 보탬이 되고자 한다.

II. “風”·“神”·“風神”의 의미

“風神”은 “風”자와 “神”자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풍격용어인 바¹⁾, 그것의 함의가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두 글자의 의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어 우선 “風”과 “神”의 字意를 고찰하여 보았다.

1) 주기평 교수는 <悲感風格 悽愴의 意味 分析>(《中國文學》제32집)이라는 논문에서 두 글자 간에 이루어진 풍격용어의 결합관계를 주종관계, 서로 다른 기준에 근거한 병렬적 의미 관계, 같은 의미의 반복으로 그 유형을 파악하였다.

먼저 “風”의 의미를 살펴보자. “風”의 의미를 《說文·風部》에서는 “風”은 여덟 방향의 바람이다. 동풍을 明庶風이라 하고, 동남풍을 清明風이라 하며, 남풍을 景風, 서남풍은 涼風, 서풍은 閭闔風, 서북풍은 不周風, 북풍은 廣莫風, 동북풍을 融風이라한다”²⁾라 하고 있어 “風”을 공기의 유동현상인 바람의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說文》의 이러한 풀이는 본고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風神”의 “風”의 함의를 탐색하는 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上海古籍出版社에서 출판된 《辭海》³⁾에서는 “風”의 의미를 ① 공기의 유동현상 ② 風俗/風氣 ③ 氣勢 ④ 作風/風度 ⑤ 바람소리/소식 ⑥ 풍경 ⑦ 전설적 ⑧ 《詩經》중의 六義의 하나 ⑨ 민가 ⑩ 교화 ⑪ 실종되다 등 14가지의 의미로 풀이하고 있고 《漢語大字典》⁴⁾, 《中文大辭典》⁵⁾, 《漢語大詞典》⁶⁾에서의 “風”의 의미 풀이도 《辭海》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들 字解書와 사전에서 풀이하고 있는 “風”의 의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氣勢”와 “作風”인데, 이 둘은 문학평론에서 언급되는 “風”의 의미와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風”은 특정 작품이나 어떤 작가의 상당수 작품이 힘차게 내뿜는 기운을 가지는 것을 형용할 때 사용하는 용어나 특정 작품이나 어떤 작가의 상당수 작품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표현할 때 사용될 경우의 의미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作風과 같은 항목에 나열된 風度는 사람의 풍채와 태도라는 의미인 바, 내면적 요소가 융합되어 나타나서 사람에게 주는 총체적인 느낌이라는 점에서 예술영역에서의 “作風”이라는 말과 상당히 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劉勰의 《文心雕龍·風骨》에서는 “是以昭述情，必始乎風(깊고 절박하게 사람을 감동시키려 정감을 토로하고자 하면 반드시 風에서 시작하

2) 風，八風也。東方曰明庶風，東南曰清明風，南方曰景風，西南曰涼風，西方曰閭闔風，西北曰不周風，北方曰廣莫風，東北曰融風。

3) 1989年版

4)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編，(제1판: 四川辭書出版社·湖北辭書出版社, 1993).

5)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編，(제7판: 中國文化大學出版, 1985).

6)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제1판: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3).

여야 한다.)고 하고는, “深乎風者, 述情必顯(風에 깊이 정통할 경우 감정 토로가 반드시 분명해 진다.)” 하였다. 역시 “風”에 대해 周振甫 선생은 《文心雕龍今譯》⁷⁾에서 유험이 “風”은 “化感之本源, 志氣之符契(감화의 바탕이요, 志氣의 표지)”라 하였다 하고는, “風”의 함의를 “風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인데, 이러한 힘은 志氣에 부합하는 것이고, “志”는 “情志”이며 “氣”는 “才氣”로, 작품의 내용이 空洞하고 才氣가 없으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역량도 없고 “風”도 없다”⁸⁾하고는, 결론적으로 “風”은 감정 토로가 생동적인 것에도 빛나는 문체가 더해져야 형성된다고 보았다.⁹⁾ 祖保泉 선생도 《文心雕龍解說》에서 “風”을 사람을 감동시키는 원천으로 보고, “風”이 있게 하려면 문사가 강건하고 충실하며 맑고 시원하고 힘이 넘쳐야 한다고 하였다.¹⁰⁾ 이로써 “風”은 문학예술에 있어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근원임을 알 수 있다. 즉 문학작품에 “風”이 없으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神”字의 의미를 《說文·神部》에서는 “신은 천신이다. 만물을 끌어내는 존재다”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이 역시 “風”자의 의미 풀이와 마찬가지로 “風神”의 “神”의 함의 분석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듯하다. 上海古籍出版社에서 출판된 《辭海》에서는 “神”의 의미를 ① 종교 및 신화에서 물질세계를 주재하는 초자연적이고 인격과 의식을 갖춘 환상적인 존재물 ② 기이하여 짐작할 수 없다/일상적인 것과는 다르다 ③ 정신 ④ 모양/초상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 일단 ①의 의미는 풍격용어로서의 “風神”의 “神”자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고 ②와 ③의 의미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작품의 심미적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개연성 때문이고, ③은 작품을 작자의 정신세계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볼 때 관련성이 적지 않다는 짐작 때문이다. 그러나 “神”

7) (제1판; 北京: 中華書局, 1983), 260쪽.

8) 같은 책, 260쪽.

9) 같은 책, 261쪽.

10)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1993), 562쪽 참조.

에 대한 이러한 의미 풀이는 구체적이지 못한 면이 적지 않다. 한편, 문장 창작에 있어서의 “神”자의 의미에 대해 茅坤의 해석이 있는데, “風神”이란 용어를 산문평론에 처음으로 원용한 사람이 바로 모곤이라는 점을 두고 볼 때 그의 “神”에 대한 풀이는 그 의미 분석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모곤은 <文訣五條訓繹兒輩>에서 “神”에 대해 “神은 문장 가운데 깊숙한 빛이요, 그윽한 예술적 구상으로 은근하게 정취가 있고 여음이 길고 가느다란데, 다가가 보지만 얻을 수는 없으나 맛은 무궁한 것이다¹¹⁾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神”은 문학예술에서 문학적 구상이 주는 그윽한 정취가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심미효과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상에서 “風”과 “神”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상술한 “風”의 의미에 대한 풀이를 통해 “風”는 문학예술평론에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근원이자 역량으로 충실한 내용에다 감정을 이입하고 문학적 기교가 가미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神”은 이러한 “風”이 독자에게 가져다주는 심미효과로 정리된다.

그렇다면 “風”字와 “神”字가 결합된 “風神”의 의미를 권위 있는 사전에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中文大辭典》에서의 풀이를 살펴보면 ① 사람의 풍채와 정신을 말하며, 인격과 같다. 風格/風骨이다. ② 風味/氣韻을 말한다. ③ 서예의 風姿神韻을 이룬다고 풀이하고 있고¹²⁾, 《漢語大詞典》에서는 ① 風采/神態를 말한다. ② 예술 작품의 文采神韻을 말한다¹³⁾고 풀이하였다. 이 두 사전에서의 풀이 가운데 《中文大辭典》의 ②③과 《漢語大詞典》의 ②가 예술평론 영역에서 사용된 “風神”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는데, 이는 본고에서 규명 하려는 바 “風神”의 함의를 탐색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전이니만큼

11) 茅坤, 《茅鹿門先生文集》卷32(浙江古籍出版社:杭州, 1993), 875쪽. “神者, 文章中淵然之光, 杳然之思, 一唱三嘆, 餘音長娜, 即之不可得, 而味之又無窮者也.”
 12) 《中文大辭典》에서는 “風神”의 의미를 “① 謂人的風采精神, 猶人格 風格 風骨. ② 謂風味氣韻也. ③ 謂書法之風姿神韻也.”로 풀이하고 있다.
 13) 《漢語大詞典》에서는 다음과 “風神”의 의미를 “① 風采 神態 ② 指藝術作品的文采神韻”으로 풀이하고 있다.

예술작품이 어떠한 요소를 갖추어야 “風神”이란 용어로 개괄되어지는지, 풍신이란 용어로 개괄되어진 요소들은 어떠한 심미효과를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이 부족한 부분이 바로 본고에서 밝혀야 할 핵심 과제이다.

Ⅲ. “風神”의 용례를 통한 함의 변석

1. 전통 산문평론에 운용되기 이전의 “風神”의 함의

전술한 바와 같이 “風神”이란 용어가 산문평론에 원용된 것은 明代에 와서이고, 歸有光과 茅坤에 의해서이다. 이들이 인물품평·서화평론·시가평론에 운용되던 “風神”이란 용어를 산문평론 영역에 원용한 것은, “風神”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형용할 수 있게 되기 위한 구체적인 구비조건은 각 영역마다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산문작품을 감상할 때 느끼게 되는 그 무언가가 앞서 운용된 영역에서와 일치하는 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산문평론 영역에 원용된 “風神”의 함의를 변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앞서 사용된 “風神”의 함의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 생각된다.

먼저 인물품평에 사용된 용례를 통해 이 영역에서의 “풍신”의 함의를 살펴보자.

天錫見其(王彌) 風神清令, 言語如流, 陳說古今, 無不貫悉.(장천석이 그(왕미)를 만나보니 風神이 청명하고 말이 흐르는 물 같으며 고금을 두루 말하는데 꿰뚫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¹⁴⁾

楷風神高邁, 容儀雋爽, 博涉群書, 特精理義, 世人謂之玉人.(배해는 風神이 고매하고 의용·풍체가 雋爽하며, 문 서적을 두루 섭렵하였고 특히 이

14) 劉義慶著·劉孝標注, 《世說新語箋疏·賞譽下》(上第8(제1)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494쪽.

치와 의에 특히 밝아 세상 사람들이 그를 “옥 같은 사람”이라 하였다.)¹⁵⁾

瓊風神警亮, 進退詳審.(육경은 風神이 위엄 있고, 주도면밀하다.)¹⁶⁾

儀範清冷, 風神軒舉.(행동거지가 깔끔하고 風神이 험거하다)¹⁷⁾

風神簡貴, 志氣方嚴.(風神이 산뜻하고 고귀하고 志氣가 절도 있고 엄격하다.)¹⁸⁾

清河王曄字宣仁, 幼而敏, 慧美姿貌, 孝文愛之, 彭城王勰甚器之, 并曰: 此兒風神外偉.(清河王 원역은 자가 宣仁인데 어려서 총기가 있고 지혜가 뛰어나고 자태가 틀이 잡혀있어 문제가 아꼈으며 팽성의 왕첩도 심히 그를 그릇이라 여김과 아울러 이르기를 ‘이 아이는 풍신은 超出하고 기이하다 하였다.’)¹⁹⁾

君風神秀特, 人皆望而欽之.(단군은 風神이 빼어나고 남달랐으니 사람들이 다 그를 우러러보고 공경하였다.)²⁰⁾

皇爲皇孫時, 風神秀異, 英姿高邁.(황제께서 황손일 때 風神이 빼어나고 남달랐고 영명한 자태가 고매하였다.)²¹⁾

위의 용례를 통하여 보건데, 인물 품평에 쓰인 “風神”은 인물에게서 느낄 수 있는 일종의 분위기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인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風神”이란 말로써 개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예가 없어 그 구성요소를 규명해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것

15) 姚思廉, 《晉書·裴楷傳》(臺北: 中華書局, 1972, 四部備要).

16) 李延壽, 《南史·陸瓊傳》(臺北: 華書局, 1972, 四部備要).

17) 庾信, 《齊王憲神道碑》, 《庾開府全集》(臺北: 中華書局, 1966, 四部備要).

18) 姚思廉, 《晉書·王恭傳》(臺北: 中華書局, 1970, 四部備要).

19) 李延壽, 《北史·清河王元曄傳》(臺北: 中華書局, 1971, 四部備要).

20) 范仲淹, 《范仲淹全集》(北京: 中華書局, 叢書集成初編-2360).

21) 王諱, 《唐語林·豪爽》(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이 외면으로 나타나서 드러나서 보는 이에게 주는 느낌은 “淸令(투명할 정도로 맑고 깨끗함)”·“高邁(고결하고 고상함)”·“警亮(날쌔고 재치 있음)”·“軒舉(높이 드리워져 보임)”·“簡貴(깔끔하면서 귀해 보임)”·“外偉(위엄 있게 보임)”로 정리되는데, 이들 어휘는 공히 “非凡”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로써 인물 품평에서의 “風神”은 모든 사람의 분위기를 형용할 때 다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 비범하여 못사람들과 다른 초월적 느낌을 주는 인물을 형용할 때야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書畫평론에 운용된 “風神”의 용례를 살펴보자

雖篆隸草草, 工用多變, 濟成厥美, 各有攸宜: 篆尚婉而通, 隸欲精而密 … 然後灑之以風神, 溫之以妍潤, 鼓之以鼓勁, 和之以閑雅, 故可達其情性, 形其哀樂.(비록 전서·예서·초서·今草·草草가 기교와 쓰임이 변화가 많지만, 그것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냄에는 제각기 마땅히 갖추어야 할 바가 있다. 전서는 꼬불꼬불하고 예쁘면서 둥글게 튀어야 하고, 예서는 정교하고 촘촘해야 하며 … 그런 다음 風神으로써 그것을 늠름하게 하고 아름답고 부드러운으로써 그것을 온화하게 하는데 … 그러므로 작가의 정감과 품성을 표현하고 작가의 슬픔과 즐거움을 나타낼 수 있다.)²²⁾

智則無涯, 法固無定, 且以風神骨氣者居上, 妍美功用者居下.((사람의) 지혜는 끝이 없고 (서예의) 규범도 실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風神과 골기를 추구한 것으로써 위로 치고, 아름다움과 효용을 추구한 것으로써 아래로 친다.)²³⁾

狀貌顯而易明, 風神隱而難辨, 有若賢才君子立行立言, 言則可知 行不可見, 自非冥心玄照, 閉目深視, 則識不盡矣.(모양세는 드러나 있어 알기 쉬우나 風神은 감추어져 알아보기 어렵다. (그것은) 마치 어진 인재와 군자의 행위와 말과 같은 것이어서 말은 알 수 있지만 행위는 볼 수 없으므로 자연

22) 孫過庭, 《書譜》(北京: 中華書局, 叢書集成初編-1622).

23) 張懷瓘, 《書議》, 華東師範大學古籍整理研究室, 《歷代書法論文選》(上海書店出版社, 1979).

히 마음을 몰두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²⁴⁾

資運動于風神, 潤澤然于潤色.(風神에서 붓놀림을 취하고, 윤색에서 호연함을 기른다.)²⁵⁾

風神嚴于智英, 潤色寡虞世南.([眞行의 글씨는] 風神이 지영보다 굳세고, 윤색은 우세남보다 약하다.)²⁶⁾

其隸則習於鍾公, 風神稍怯.(그[阮研]의 예서는 종공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風神이 다소 약하다.)²⁷⁾

書以疎慾風神, 密慾老氣.(서예는 성김으로써 風神을 드러내고, 조밀함으로써 노련함을 드러낸다.)²⁸⁾

風神者, 一須人品高, 二須師法古, 三須筆紙佳, 四須勁險, 五須高明, 六須潤澤, 七須嚮背得宜, 八須時出新意.(風神이라는 것은 첫째는 인품이 높고, 옛 사람의 작품을 스승삼아 배우고, 붓과 종이가 좋아야 하며, (필획 구조가) 가파르고 힘 있어야 하고, 고명해야 하며, (먹의 색깔이) 검고 광택이 나야하며, 향배가 제격이어야 하고, 새로운 意境을 자아낼 수 있어야지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²⁹⁾

然而, 襟韻不高, 記憶雖多, 莫湔塵俗, 若風神蕭散, 下筆便當過人.(그런데 가슴속 기개가 높지 않으면 기억(前인들의 필묵에 대한 기억)이 비록 많다 손 치더라도 속기를 씻어내지 못하지만, 만약 風神이 자연스레 발산되면 붓을 대기만 하면 당연히 남을 뛰어 넘는다.)³⁰⁾

24) 張懷瓘, <書斷序>, 같은 책.

25) 같은 책.

26) 張懷瓘, <神品(中)>, 같은 책

27) 張懷瓘, <書斷(中)>, 같은 책.

28) 姜夔, <續書譜·疎密>(華東師範大學古籍整理研究室 <歷代書法論文選> 上海書店出版社, 1979).

29) 姜夔, <續書譜·風神>, 같은 책.

30) 姜夔, <續書譜·草書>, 같은 책.

伯英祖述之, 其骨力精熟過之也, 索靖乃越製特立, 風神凜然, 其雄勇勁健過之也.(伯英(張芝의 字)이 그(崔瑗)를 모방했지만 그의 글씨의 剛健 함과 정밀 숙련됨은 그를 뛰어넘었고, 소정은 더욱 더 우뚝 서서 風神이 넘치니 그의 빼어나게 용감하고 굳세고 힘이 넘침은 그를 뛰어넘는다.)³¹⁾

中書醉墨滿人間, 此幅風神更不俗.(이 그림은 風神이 더욱 더 속되지 않네.)³²⁾

위의 용례를 통해 보건데, 서화 품평에서는 “風神”을 인물 품평에서는 원용되어 “문위기”라는 개괄적인 차원의 의미로 쓰인 것 외에도 그것의 구비조건에서부터 체현방법, 심미효과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風神”은 “骨氣”와 함께 서예에서 좋은 작품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요건인데, 이는 인품이 높고, 옛 사람의 작품을 스승삼아 배우고, 좋은 붓과 종이를 사용하고, 것을 글자에 힘이 넘쳐야 하며, 高明해야 하며, 墨이 반지르르하게 빛나야 하며, 향배가 제격이어야 하고, 새로운 意境을 자아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체현해내기 위해서는 “疏(글씨의 구성이 촘촘하지 않고 듬성듬성하고 시원함)”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密”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여 형성되어진 “風神”은 쉽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서 감지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일단 “風神”을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드러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 작품은 타인의 작품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범속함을 초월하는 느낌을 주는 우수한 작품이 된다. 따라서 “風神”은 최고 수준의 서화 작품에다 사용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詩歌 평론과 음악평론에 원용된 용례를 살펴보자.

遺我行旅詩, 軒軒有風神.(나에게 行旅詩를 보내 주었는데 높디 높게 風神이 있네)³³⁾

31) 같은 책.

32) 唐順之, <題夏中書畫竹>, 《荊川先生集》,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85).

33) 韓愈, <酬裴十六功曹巡府西驛途中見寄>, 《韓昌黎全集》卷4(北京: 中國書店,

擬《十九首》，自士衡諸作，語已不倫。六朝而后，徒具篇名，意態風神，不知何在？(擬《十九首》는 육기의 제 작품부터 시어가 이미 몇몇한 도리에 맞지 않다. 육조이후로는 편명만 남아 있어 의태와 風神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³⁴⁾

唐文綺繪精工，風神獨暢。(당대의 문장은 꾸밈이 정교하고, 風神이 유독 시원스럽다.)³⁵⁾

古體下初唐七言古以才藻勝，盛唐以風神勝。李杜以氣概勝，而才藻風神稱之。加以變化靈異，遂爲大家。宋人非無氣概，元人非無才藻，變化風神邈不復觀。(초당의 칠언고시는 문체로써 두드러지고, 성당은 風神으로써 두드러진다. 이백과 두보는 기개로써 두드러지면서 문체와 風神으로도 그들을 칭찬한다. 게다가 변화와 기이함을 더하였으니 마침내 대가가 되었다. 송대 사람의 작품에는 기개가 없는 것이 없고, 원대 사람의 작품에 문체가 없는 것이 없으나 변화와 風神의 모양은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³⁶⁾

其詞隨語成韻，隨韻成趣，不假彫琢，而意志自深，風神或近楚《騷》。(그의 사는 어휘를 따라 운을 이루고, 운을 따라 흥취를 이루니 다듬지 않았는데도 의미와 뜻이 자연히 깊으니 風神이 초사의 《離騷》에 가깝다.)³⁷⁾

彦回援琴奏別鶴之曲，宮商既調，風神諧暢。(언회가 거문고를 부등켜안고 別鶴曲을 연주하는데 궁상이 잘 어우러지니 풍신이 조화되고 시원스럽다.)³⁸⁾

위에서 시가평론과 음악평론에 원용된 “風神”의 예를 살펴보았다. 이 두 영역에 사용된 “風神”의 의미는 인물품평에서 사용된 “분위기”라는 의미와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서화평론에 원용된 용례의 경우와는 달리

1991).

34) 胡應麟, 《詩藪·內篇》卷2 古體中 五言(臺北: 廣文書局, 1973).

35) 같은 책.

36) 胡應麟, 같은 책, 卷3古體下(臺北: 廣文書局, 1973).

37) 魯迅 著, 洪석표 역, 《漢文學史綱要》第八篇(서울: 선학사, 2003).

38) 李延壽, <楮彦回傳>, 《南史》(臺北: 中華書局, 1972, 四部備要).

“風神”의 구체적인 함의와 구성요소를 파악 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한다.

2. 전통 산문평론에서의 “風神”의 함의

인물평평, 서화평론, 시가평론, 음악평론 등에 사용되던 “風神”이 明代 歸有光과 茅坤에 의해 산문평론에 원용된³⁹⁾ 이후로 줄곧 산문평론에 사용되었다. 전통 산문평론에 “風神”의 용례를 분석해 본 바, “風神”을 이전에 여타 영역에서 사용된 “분위기”이라는 의미로서 산문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 내지는 작가의 “풍격”을 형용하는 의미로 원용된 경우도 더러 있지만, 이와는 달리 어떤 특수한 개념으로 쓰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본고에서는 산문평론에 원용된 “風神”이 “분위기”내지 “風格”의 의미로 쓰인 경우는 논외로 하고자 하는데, 이는 이 경우의 “風神”의 의미는 사전류에서 명시해놓은 개념과 다른 바가 없어 논의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특수한 개념으로 쓰인 경우의 “風神”의 용례를 분류하여 보면 크게 어떠한 요소가 문장에 “風神”이 나타나게 하는지를 언급한 용례와 그것이 어떠한 심미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언급한 용례로 나눌 수 있다.

1) “風神”의 형성요소

먼저 어떠한 요소가 문장에 “風神”이 나타나게 하는지를 언급한 용례를 정리해 보면 언어적 측면에서 언급한 것, 표현방식적 측면에서 언급한 것, 표현기법적 측면에서 평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언어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요소를 구비해야 “風神”이 나타나는지를 언급한 평론부터 살펴

39) 다만 曾子魯 선생의 《韓歐文探勝》에서 출처를 잘못 기록 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책에 따르면 “風神”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南宋의 孫奕으로 필자가 파악한 바인 귀유광, 모곤보다 약 200년이나 더 앞선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필자의 확인 결과 誤記로 확인되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六一風神”의來源及其闡釋>(《中國文學研究》, 湖南師範大學 1998年 第4期)을 참조하기 바람.

보자.

世之論韓文者，共首稱碑誌。予獨以韓公碑誌多奇崛險譎，不得《史》、《漢》序事法，故於風神處或少適逸。(세상에 한유의 문장을 논하는 사람은 다 비지문을 맨 먼저 말한다. 나는 유독 한유의 비지문은 기이한 말이나 표현이 많아 《史記》와 《漢書》의 서사법을 터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風神이 나타나는 곳에서 간혹 適逸함이 적다고 여긴다.)⁴⁰⁾

王鏊《震澤長語》論爲文妙訣曰：爲文必師古，讀之使人不知所師，善師古者也。韓師孟，今讀韓文，不見其爲孟也。歐學韓，亦不覺其爲韓。愚按歐之學韓，神骨皆類，而風貌不類，但觀惟儼、祕演詩文集二序，推遠浮屠之意，與韓同能，不爲險語，而風神自遠，則學韓真不類韓矣。(王鏊의 《震澤長語》에 글을 짓는 비결을 말하기를: ‘글을 지움에 반드시 옛사람을 스승으로 하여야 하지만 그것을 읽는 이로 하여금 스승으로 삼은 바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야지 옛 사람을 잘 배운 것이다. 한유는 맹자를 배웠지만 그가 맹자를 배웠음이 보이지 않는다. 구양수는 한유를 배웠지만 역시 그가 한유를 배웠다는 것을 느낄 수 없다. 내 생각에 구양수가 한유를 배움에 神骨은 다 유사하나 風貌는 닮지 않았지만, 단지 惟儼、祕演詩文集 두 서문이 불교의 교리를 멀리 밀친 의도는 한유와 똑같이 능하지만, 險語를 쓰지 않아서 風神이 자연히 멀리 가니 한유를 배웠어도 한유를 닮지 않았다고 여겨진다.)⁴¹⁾

《漢書》不惟能換字，而且能用熟字爲生澁之句，亦有于不經意中，以常用之字稍爲移易，乃見風神。(《한서》는 글자를 바꾸는데 능할 뿐 아니라, 잘 알고 있는 글자로써 生硬하고 난잡한 문구를 짓는데 능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상용자로써 약간 바꾸고 변화시키니 곧 風神이 나타난다.)⁴²⁾

40) 茅坤, <唐宋八大家文鈔論例>, 《唐宋八大家文鈔》(一)(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15쪽.

41) 林紓, 《春覺齋文集·忌剽襲》(제1 판;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59), 91 쪽.

42) 林紓, <用字四法·換字法>, 같은 책, 129 쪽.

歐文多用此法，然亦不數見。若《漢書》則在在皆着意，句句見風神。(구양수 문장은 이 기법을 사용하였지만 (風神) 몇 차례 드러내지 못하였다 《한서》 같은 경우는 도처에 다 유의하니 매 句마다 風神이 나타난다.)⁴³⁾

[矣]字…鄙意雖名決辭，言外須有沈吟惋惜之意，則用[矣]字方有餘味。(〔의〕자가…비록 문장 종결사라 이름 하지만, 言外에 沈吟惋惜의 의미를 있게 하려면 [矣]자를 사용하여야 비로소 餘味가 생긴다.)⁴⁴⁾

위의 용례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보면 “奇崛險譎”한 표현은 “風神”의 중요 특성 가운데 “澹逸(힘찬 포일함).”한 미적 특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인 바, “風神”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는 반대되는 “平易自然”한 문자나 표현을 사용하여 작품을 써야하고, “險語(난잡한 낱말과 句法이 기이하고 특이한 표현)”를 쓰지 말아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상용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감탄어기사 “矣”를 비롯한 문장의 어기와 감정표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허사를 적절하게 많이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다음으로 표현방법 측면에서는 어떠한 요소를 구비해야 “風神”이 나타나는지를 용례를 통해 살펴보자.

今觀歐公全集，其議論之文，如《朋黨論》、《爲君難論》、《本論》，考證之文，如《采易系辭》，皆委婉曲折，意無不達，而尤長于言情。序跋如《蘇氏文集序》、《釋秘演詩集序》，碑誌如《瀧岡阡表》、《石曼卿墓表》、《但徠先生墓誌銘》，雜記如《丰樂亭記》、《峴山亭記》等，皆感慨系之，所謂六一風神也。(지금 구양수의 진집을 살펴보니 그의 議論의 글, 예를 들면《봉당론》·《위군난론》·《본론》; 考證의 글, 예를 들면 《변역계사》는 다 委婉曲折하여 생각을 표현해내지 않은 것이 없는데, 특히 정감을 토로하는데 뛰어나며; 序跋, 예를 들면《소씨문집서》·《석비연시집서》; 碑誌文, 예를 들면《상강천표》·《석만경묘표》·《조래선생묘지명》; 雜記, 예를 들면《풍락정기》·《현산정기》등은 다 感慨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六一

43) 林紓, 《用字四法·矣字用法》, 같은 책, 133쪽.

44) 같은 책.

風神이라는 것이다.)⁴⁵⁾

歷敘交遊，而俯仰身世，感嘆淋漓，風神 滄逸，當與〈黃夢升〉、〈張子野〉并序墓誌之絕唱。(생전의 교유를 두루 서술하면서 신세를 올려보고 내려다보면서 느끼어 탄식함이 흥건하고 風神이 雄健飄逸하니 〈황몽승묘지명〉·〈장자야묘지명〉과 序의 絕唱과 필적할 만하다.)⁴⁶⁾

내용적 측면에서 “風神”을 나타나기 위해 구비해야 할 요소를 언급하고 있는 평론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는데, 위 인용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風神”이 나타나는 데에는, 내용의 충실함이 담보된 작품의 경우, 의론을 한 글이든, 고증을 위한 글이든 책의 서문이든, 비지문이든, 글의 내용이나 문장체제가 어떤 것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의 표현 방법에 있어 감정이 질게 이입되어 있어야 하고(長于言情) 그것이 감개와 관련되어 나타나거나(感慨系之) 감탄이 흠뻑 배여 있어야 한다는(感嘆淋漓) 요구는 충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장 표현기교 측면에서는 어떠한 요소를 구비해야 “風神”이 나타나는지를 언급한 평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五代史》則出於公之所自助者，故梁、唐帝紀及諸名臣戰功處，往往點次如畫，風神燁然。(《五代史》는 구양수가 직접 지은 것이므로 梁·唐帝紀 및 여러 명신들의 戰功을 서술하는 곳에서 비평하면서 하나하나 차례차례 서술한 것이 자주 그림 같으니 風神이 맑게 빛난다.)⁴⁷⁾

朱瑾行事甚偏強狃狡可鄙，而歐公語次，風神可掬。(주근이 일을 처리함에 고집이 세고 오만하며 교활하여 실로 비열하나 구양수의 주근의 행위를 하나하나 적절한 구성으로 서술해 나가는 기법은 풍신을 움켜 뜰만 하게 한

45) 呂思勉,《宋代文學》, (北京 商務印書館, 1929, 14 쪽).

46) 劉大櫟,〈河南府司隸張君墓表〉評語, 王文瀾,《諸家評點古文辭類纂》卷32 (洪本健,《歐陽修資料彙編》, 中華書局, 1995, 917쪽 재인용).

47) 茅坤,〈廬陵史鈔引〉,《唐宋八大家文鈔》(一)(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680쪽.

다.)⁴⁸⁾

此書凡三段,一段歷敘諸君子之離合,見已慕望之切,二段稱歐陽公之文,見已知公之深.三段自敘平生經歷,愆歐陽公之知之也.而情事婉曲周折,何等意氣,何等風神.(이 서신은 모두 세 단락인데, 첫 단락은 여러 군자들의離合을 두루 서술하였고, 둘째 단락은 구양수의 문장을 칭송하여 자신이 구양수를 깊이 안다는 것을 보이고, 세 번째 단락은 평생 경력을 자술하여 구양수가 자신을 알아주었다는 것을 나타내려 하였으니 정감과 사건의 표현이 은근하고 곡절함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풍신스러운가!)⁴⁹⁾

予覽歐陽公點次從榮纂弒明宗處,固多風神.(내가 구양수가 종영이 명종을 시해하는 것을 비평하며 서술한 곳을 보았는데 정말이지 풍신이 많았다.)⁵⁰⁾

荆公第一首誌銘,須看他頓挫紆徐,往往敘事中伏議論,風神蕭颯處.(왕안석의 첫 번째 묘지명인데, 모름지기 돈좌우서 왕왕 서사 가운데 의론이 앞드러 있으니 풍신이 쓸쓸하게 살아있다.)⁵¹⁾

其所沿情而鼓調布詞也,益暢風神,適以宕.(그가 감정의 흐름을 따라 어휘를 배치하니 풍신을 더욱 더 시원스럽고, 힘 있고 자유분방하게 한다.)⁵²⁾

就請銘之文,略施剪裁,便爾成此,妙在不漏一事,不贅一辭,而先后輕重位置得序.風神峭宕,猶其餘事.(명문을 칭하는 글을 쓰는데 약간 구성을 달리하니 곧 바로 이러한 작품이 되었다. 기묘한 것은 한 가지 일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의 군더더기 말을 더하지도 않으면서 앞뒤 경중을 따져 위치가 제 순서를 찾으니 풍신이 자유분방하여 마치 남은 일이 있는 듯하다.)⁵³⁾

48) 茅坤, <朱宣傳>評語, 같은 책 卷73, 800쪽.

49) 茅坤, <上歐陽內翰書>評語, 같은 책(二)卷109, 324쪽.

50) 茅坤, <唐秦王從榮傳>評語, 같은 책 卷63 703쪽.

51) 茅坤, <給事中孔公墓誌銘>評語, 같은 책(二)卷92 130쪽.

52) 茅坤, <題範光甫所刻學業引>, 《茅鹿門先生文集》卷31(浙江古籍出版社:杭州, 1993), 848 쪽

53) 王文濡, <南陽縣君謝氏墓誌銘>評語, 王文濡, 《諸家評點古文辭類纂》(洪本健,

[朱熹之文] 大抵醇實出曾鞏, 疎快似蘇軾, 而結筆稍馳流韻; 未若歐公之謹于布置, 饒有風神.(주희의 문장은 대저 醇實 함은 증공에게서 나왔고, 시원스러운 소식을 닮아서 문장이 약간 치달리면서 운을 흘리지만 구양수의 구성을 빈틈없이 하느니만 못하다.)⁵⁴⁾

經史子集雖分重輕, 而均不可使散亡磨滅. 論中原委分明, 而尊尚仍在經術. 抑揚頓折, 無限風神.(경사자집을 비록 경중을 따져 나누지만 모두 없어지게 해서는 않된다. 논하는 가운데 본말이 분명하여 떠 받들은 그래도 경술에 있고 억양돈절하니 풍신이 끝이 없도다.)⁵⁵⁾

위의 용례를 정리하여 보면 표현기교 면에서는 “風神”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건서술은 일목요연하면서 그림을 보는 듯하도록 박진감 있게 (語次點次情事如觀, 點次如畫) 서술하고, 하나의 사건도 빠뜨리지 않고 서술하면서도 군더더기 말을 한마디도 붙이지 않고, 일의 무게를 따져 선후 배치를 적절히 하지만(謹于布置) 그 위치가 순서에 맞아야 한다(妙在不漏一事, 不贅一辭, 而先后輕重, 位置得序.) 아울러 어휘 배치는 감정의 움직임에 따라야 한다.(沿情而鼓調布詞), 그리고 직선적인 서술, 즉 주제가 서두에 출현하거나 지나치게 전면이 부각되지 않게 곡절하게 표현하여야 하며(情事婉曲週折, 頓挫紆徐), 의론이든 서사든 서정이든 한 가지 표현 방식만 사용하지 않고 이들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배합하여(往往敘事中伏議論) 문장을 쓰면서 抑揚頓折 를 하여 剛柔相濟 하도록 해야 한다.

2) “風神”의 심미효과

앞 절에서는 風神이 나타나려면 어떠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갖춘 “風神”은 어떠한 심미효과를

《歐陽修資料彙編》, 北京: 中華書局, 1995, 1314쪽 재인용).

54) 錢基博, 《中國文學史》(上中下), (北京: 中華書局, 1993), 635 쪽

55) 沈德潛, 《唐書藝文誌論》評語, (洪本健, 《歐陽修資料彙編》, 北京: 中華書局, 1995, 842쪽 재인용).

가져다주는지 용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西京以來，獨稱太史公遷，以其馳驟跌宕，悲慨嗚咽，而風神所注往，往于點綴指次外，獨得妙解，譬之覽仙姬于瀟湘洞庭之上，可望而不可近者。(서한 이래로 유독 사마천을 칭송하는 것은 그의 문장이 세차게 치달리고 내달리며 슬피 울부짓지만 풍신이 모인 곳에서는 왕왕 點綴指次 밖에서 유독 기발한 풀이를 해내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이것은) 선녀가 瀟水와 湘水 그리고 동정호 위에 있는 것을 보는데, 바라 볼 수는 있으나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⁵⁶⁾

風神盎然，特篇末猶似未了語。(풍신이 넘쳐흐르니 특히 문장의 끝에서 마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⁵⁷⁾

風神瀟灑，以靜氣得之，熟玩此種，自能遠絕俗囂。(풍신이 소탈하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고요한 기운으로 이것을 얻어, 이러한 것에 익숙하게 되노라면 자연히 세속의 소란스러움을 멀리할 수 있다.)⁵⁸⁾

于平易中見風神，令人讀之不覺肅然起敬。(평이한 가운데 풍신이 나타나니 이 작품을 읽는 이로 하여금 부지불식간에 숙연하여 경외하게 한다.)⁵⁹⁾

(劉敞，字原父文)大抵風神不如歐陽脩之駘宕，議論不如蘇氏父子之瀾灑。(유의 문장은 風神은 대체로 구양수의 駘宕한만 못하고, 의론은 소씨부자의 瀾灑함만 못하다.)⁶⁰⁾

歐陽脩之風神駘宕，蘇氏父子之辭筆雄駿，咸以所能擅雄宋代。(구양수는 風神이 駘宕함으로, 소씨부자는 辭筆이 雄駿 함으로 다 송대를 주름잡을 수 있

56) 茅坤, <歐陽文忠公文鈔引>, 앞의 책 836쪽.

57) <答貢士沈起書>評語, 茅坤, 《唐宋八大家文鈔》(일)卷92(上海古籍出版社:上海, 1993), 232쪽.

58) 張裕釗, <送湖南李正字序>評語, 王文濡, 《諸家評點古文辭類纂》.

59) 李景星, <孔子世家>評語, 《四書評議》, (韓兆琦, 《史記通論》,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20쪽에서 재인용).

60) 錢基博, 같은 책, 527쪽.

있다.)⁶¹⁾

獨孤常州爲《殿中侍御史文章集錄序》曰：‘文情動于中，而形于聲，文之微也。’夫聲即韻也。… 故世之論文者恒以風神推六一，殆即服其情韻之美。(독고상주가<전중시어사문장집독서>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글을 쓰려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움직여져 소리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문장을 짓는 오묘함이다. 무릇 소리는 바로 韻이다.… 따라서 세상에 문장을 논하는 사람들이 늘 풍신으로써 구양수를 떠받드는데 그것은 아마 바로 그의 운치의 아름다움인 것 같다.)”⁶²⁾

이상의 용례를 통하여 “風神”은 다음과 같은 심미효과를 나타내는 풍격 용어로 파악된다. 탈세속적이면서(遠絕俗囂) 힘 있게 꿈틀거리며 표일함(駘宕, 適逸, 跌宕適逸)을 주는데 그것은 문장을 읽는 이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을 뿐 가까이 갈 수 없는 경외감을 느끼게 하고(令人讀之不覺肅然起敬, 覽仙姬于瀟湘洞庭之上, 可望而不可近者) 문장을 다 읽고 난 후에도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여운이 남게 하는(特篇末猶似未了語, 神韻亦于頓筆加倍留意, 適逸疎宕如餐霞, 如嚼雪, 往往自眉鬣毛之所及, 而指次心思之所不及, 令人讀之解頰不已) 심미효과를 지닌다.

IV. 결 론

이상에서 인물품평·서화평론·시가평론 산문 평론 등에 두루 원용되어 온 풍격용어 “風神”의 함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風”과 “神”의 의미와 둘 간의 관계를 정리하여 보면 “風”는 문학 예술평론에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역량으로 충실한 내용에다 감정을 이입하고 문학적 기교가 가미된 것을 이르는 말이고, “神”은 이러한 “風”

61) 錢基博, 같은 책, 582쪽.

62) 林紓, 《春覺齋文集·情韻》(제1 판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59), 85쪽.

이 독자에게 가져다주는 심미효과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따라서 “風”은 내용과 표현기교를 대신해주는 字이고, “神”은 “風”이 나타내는 심미효과를 대신해 주는 字로 볼 수 있어, “風神”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작품이 지녀야 하는 충실한 내용과 표현방법 및 표현기교 그리고 심미효과까지를 총체적으로 표현해주는 풍격용어로 정리된다. 그리고 비록 각각 다른 영역에 사용되어 구체적인 체현방법은 다르지만, 심미효과 면에서 적어도 비범하면서 사라지지 않는 여운을 준다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하는 면이 있다.

인물 품평에 쓰여서는 탈세속적이고 경외감을 주는 심미효과를 담고 있는 사람의 분위기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고, 서화 평론에서 “風神”이 나타나는 작품을 최고로 치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疏”한 방법으로 글씨를 써야 하는데, 일단 “風神”을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그 작품은 범속함을 초월하는 느낌을 주는 우수한 작품이 된다. 따라서 “風神”은 최고 수준의 서화 작품에서 나타나는 심미효과로 파악된다.

산문평론에 원용된 용례를 통해서 산문 작품이 “風神”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상용자를 사용하여 平易自然한 문자나 표현으로 작품을 써야 하고, “險語” 등의 난해한 표현은 피해야 하며, 감탄 어기사 “矣”를 비롯한 허사를 多用해야함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표현방법 면에서는 어떤 내용의 글이든 간에 감정 이입을 농후하게 하고, 그것이 감개나 감탄의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또한 표현기교 면에서는 사건서술은 일목요연하면서 박진감 있게 표현하면서 사건을 빠뜨리지 않고 서술하나 굳디디기 말을 붙이지 않고, 일의 輕重을 따져 순서에 맞게 빈틈없는 문장구성을 함과 아울러 직선적인 서술을 피하여 주제가 전면이 부각되지 않도록 다양한 변화를 통해 곡절하게 서술하여야 하고, 다양한 표현 방식을 혼합하여 文情을 생동감 있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한편, “風神”이 주는 심미 효과는 탈세속적이면서 힘 있는 飄逸함 느끼게 하는데 그것은 문장을 읽는 이로 하여금 바라 볼 수 있을 뿐 가까이 갈 수 없는 경외감을 느끼게 하여, 문장을 다 읽고 난 후에도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여운이 남

게 하는 심미효과를 지니는 풍격용어로 정리 할 수 있겠다.

< 參考文獻 >

-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編, 《中文大辭典》(제7권;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編, 《漢語大字典》(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88)
- 舒新城·沈頤·徐元誥·張相 主編, 《辭海》(合訂本)(제2권; 香港: 中華書局, 1988)
- 《辭海》(修訂版;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9)
-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漢語大詞典編纂處, 《漢語大詞典》(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 陳衍, 《石遺室論文》(無錫國學專修學校叢書之十四, 民生印書局, 1936)
- 《歐陽修全集》(上,下)(臺北: 世界書局, 1936)
- 《韓昌黎全集》(上,下)(臺北: 世界書局, 1937)
- 李延壽, <褚彥回傳>, 《南史》(臺北: 中華書局, 1972, 四部備要)
- 胡應麟, 《詩藪》(臺北: 廣文書局, 1973)
- 王鎮遠, 《歷代書法論文選》(上海: 上海書畫出版社, 1979)
- _____, 《中國書法理論史》(合肥: 黃山書社, 1990)
- 華東師範大學古籍整理研究室, 《歷代書法論文選》(上海書店出版社, 1979)
- 姜夔, 《續書譜》(文淵閣四庫全書-813 : 子部-119) : 藝術類(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 周振甫, 《文心雕龍今譯》(제1권; 中華書局, 1983)
- _____, 《文學風格例話》(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89)
- 唐順之, <題夏中書畫竹>, 《荊川先生集》,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85).
- 《書譜》, (叢書集成 初編-1622, 北京: 中華書局, 1987)
- 朱世英·郭景春, 《唐宋八大家散文技法》(武漢: 長江文藝出版社, 1989)

- 劉義慶,《世說新語》(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3)
- 茅坤,《唐宋八大家文鈔》(一,二)(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3)
- _____,《茅鹿門先生文集》卷32(浙江古籍出版社 杭州,1993)
- 祖振泉,《文心雕龍解說》(合肥:安徽教育出版社,1993)
- 姜澄清,《中國書法思想史》,(北京:河南美術出版社,1994)
- 劉義慶著·劉孝標注,《世說新語箋疏》(제1판;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3)
- 洪本健 編,《歐陽修資料彙編》(上中下)(北京:中華書局,1995)
- 陳振濂,《中國書法批評史》(合肥:中國美術學院出版社,1997)
- 팽철호,《중국고전문학풍격론》(서울:사람과 책,2001)
- 黃一權,《歐陽修散文研究》(上海:華東師範大學出版社,2003)
- 魯迅 著, 홍석표 譯,《漢文學史綱要》第八篇(서울:선학사,2003).
- 洪本健,〈略論“六一風神”〉,《文學遺產》,1996年 第1期
- 黃一權,〈“六一風神”稱謂的來源及其闡釋〉,《中國文學研究》(湖南師大),
1998年 第4期
- 朱基平,〈悲感風格‘悽愴’의 意味 分析〉,《中國文學》제2집 1999.
- 禹在鎬,〈風格用語‘機趣’의 意味 辨析〉,《中國語文學》제40집,2002.

〈中文提要〉

“風神”一詞原用于人物品評,書法美學等領域。歸有光和茅坤把“風神”一詞運用于形容文章風格之后,逐漸普遍使用了。

“風”是指動人的力量,包括藝術作品中生動的抒情和光耀的文采。“神”是指因風引發的審美效果。

在傳統散文評論中風格用語“風神”的內涵包括以下一些內容:語言層次方面的因素包括文章中虛字的多用,“平常輕虛字”的使用;內容表達方面的因素包括事中融入受感觸而抒發的“感慨”;事技法方面的因素包括“点次如”,長于剪裁,按一定的次序 述錯綜複雜的場面 注重文章的層次結構;審美感覺方

面的因素則包括含蓄吞吐、紆余委備的動蕩之美使讀者橫生一種“摩蕩盤旋”之感、情韻之美。

주제어: 風神, 함의, 산문평론, 풍격용어, 심미효과

K C I